

# 金銅半跏思惟小像의 新例

黃壽永

一

한국 半跏思惟樣式像에 대한 資料는 그 材質이 金·石·土의 差別을 가릴 것 없이 收拾되어 왔다. 비록 現段階에서의 研究內容이 아직도 既存 또는 新出의 同式像에 대한 基礎的인 考察과 收拾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着手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部門에서의 저지 않은 成果를 期待케 하여 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이같은 우리 자신의 주목과 연구의 내실인즉 비단 樣式에 그치는 三國別의 論議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나아가 이같은 半跏思惟像의 尊名을 彌勒菩薩로 추정하므로서 當代에서의 이같은 樣式像에 대한 信仰이 동시에 政敎와도 깊어 관련되었던 사실과 나아가 指導人物의 思想內容을 形成함에 크게 寄與하였다는 사실에 着眼케 되었다. 예를 신라의 石像에서 들어본다면 松花山 原在의 石造像①(今在 慶州博物館) 또는 경북 月城郡 西面 斷石山에 있는 神仙寺 石窟에서 새롭게 조사된 磨崖像② 등 모두 奉安 내지 禮拜에 이르는 事由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솔직히 말한다면 國內에 傳來하는 國寶 兩像(높이 각각 三尺, 모두 國立中央博物館 소장)의 存在理由는 그들로서 代表를 삼을 수 있었던 그 당시의 信仰의 깊 이와 內實의 그들의 造成과 傳來에 따라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古代彫刻史를 빛내는 이들 世界至寶의 國內保存을 多幸으로 여길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眞價를 한층 밝혀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같은 解明을 위한 우리의 勞苦는 기대보다 더 큰 報答을 얻을 것으로 믿는 바이다. 近年에 새로 수습된 金銅小像 三軀와 金土破品 二例를 이곳에 소개하는 까닭이 또한 그같은 곳에 있다.

二

## 傳榮州出土 銅造小像

이 小像은 一九六八年 경 경북 榮州郡 西北方 二十里 떨어진 곳에서 出土되어서 곧 서울에서 民間에 매각되었다고 할 뿐 아직도 그 정확한 장소나 관계사유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小像이야말로 그 樣式에서 미루어 기왕에 알려진 이같은 樣式像중에서도 가장 오랜 작품임은 出土地가 新羅 佛敎文化의 先進地區로 추정된 사실과 더불어 한층 주목되기도 하였다.

이 小像의 특이점은 먼저 그 寶冠이 종전에 없었던 古式의 蓮花冠이며 冠帶가 兩頰에서 떨어져 垂下하였고 思惟形을 이루는 양식이 既例와는 달리 左手를 들어 反掌하고 있는 사실이다. ③ 圓臺가 밑에 있으며 身部에 비하여 매우 작다. 法衣는 兩肩에 걸쳐서 날카로운 銳角을 이루면서 重段되었고 밑으로 내려와 兩足에 따라 垂下되어서 그 끝에 주름을 잡았으며 동시에 身側으로 내려오고 있다. 相好는 長方形인데 眼眸와 口鼻가 重厚하며 兩耳는 길게 兩肩에 이르고 있다. 右手는 내리고 左足을 올려서 半跏形을 이룬 것 또한 手形과 더불어 通例와는 다르다.

이 小像은 全面이 黑色을 보이며 鍍金의 흔적은 아니보인다. 蓮花冠과 寶髮의 左右에 보이는 冠飾 그리고 天衣나 圓座의 양식 등에서 한국 半跏思惟樣式중 가장 初期의 작품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後面頭部에 小圓孔이 있고 背面에 突起 하나가 있다. 높이 十一cm, 臺徑 四·一cm(서울 尹章燮氏 소장).

三

## 傳慶南發見 金銅小像

近年에 慶南 某寺의 石塔속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할 뿐 자세한 경위는 알 수가 없다. 全面에 鍍金이 있으며 동시에 곳곳에서 黑色을 보이고 있는 것은 漆을 사용한 까닭으로 보인다.

通式을 따랐으며 立華形 高冠을 하였는데 아마도 各瓣마다 子葉이 새



傳 榮州出土 銅造小像 側面



傳 榮州出土 銅造小像 (尹章燮氏 所藏)



傳 慶南發見 金銅小像 (金東鉉氏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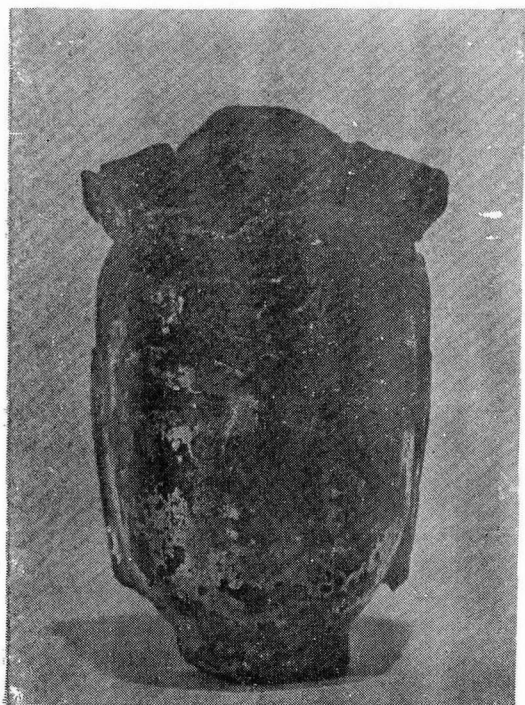
傳 榮州出土 小像 後面



傳 慶南發見 金銅小像 後面



傳 慶南發見 金銅小像 側面



傳 皇龍寺址出土 金銅佛頭



傳 寧越出土 小像 (金元全氏 所藏)

겨진 一종의 蓮花冠이 아닐가 한다. 冠帶는 兩頰을 따라 두어깨에 느러워졌는데 끝에 蓮花文이 장식되어 있다. 相好는 長方形으로 童顏에 微笑를 띄었다. 上半身은 裸形인데 裳衣는 下半身에 걸쳐서 方形에 가까운 臺座前 後面에 褶腰를 보이고 있다. 右手는 膝端에서 屈折시켜 五指를 펴서 右頰에 대었으며 左手는 길게 내려서 右足위에 이르고 右足은 半跏하였는데 그 足部는 특히 「字形」으로 屈折되었으며 左足은 내려서 三瓣蓮花座 위에 이르렀는데 身部에 비하여 매우 짧다. 그리고 身側에는 腰帶에 연결되어 二條의 板狀 紙帶가 길게 垂下되어 있다.

이 小像은 發見地의 傳稱과 既知 小像과의 비교에서 上記한 傳榮州小像과 더불어 또한 古新羅期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높이 十一·一cm에 불과하나 土中品이 아니라서 保存이 完全한 것은 또한 다행이다. (서울 金東鉉氏 소장)

#### 四

##### 傳寧越出土 小像

이 小像은 一九六四年 경에 江原道 寧越方面에서 出土되어서 民間에 소장된 것으로 일찌기 崔淳雨氏에 의하여 考古美術(五卷 六、七號) 一九六四年 六、七月에 「傳寧越出土 金銅半跏像」이라는 題目으로 소개된 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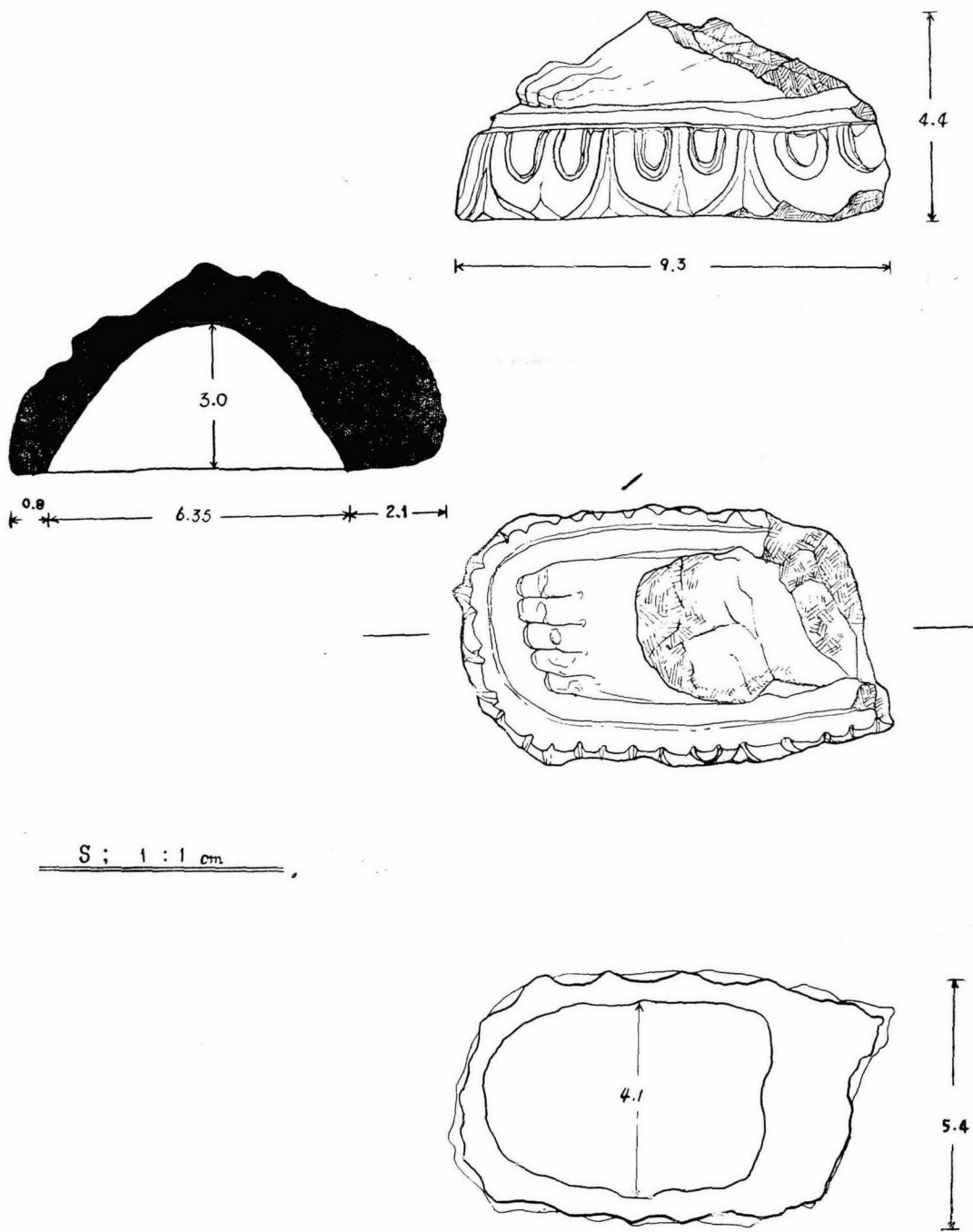
높이 八·五cm에 불과한데 그 특이한 것은 八葉單瓣紋을 이루는 圓形에 가까운 臺座와 그 위에 方形臺座를 마련하고 그 둘레에 새겨진 衣褶의 簡素한 양식이다. 그리고 頭頂에 둥근 突起를 나타내고 素面인 것은 寶冠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古拙한 相好와 蓮花紋의 양식 등에서 「六세기기의 中葉을 前後하는 시대의 작품」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출토지의 傳稱과 더불어 三國期 작품의 考察에서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 小像을 脇侍菩薩로서 추정하는 것은 그 臺座의 樣式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그것은 脇侍像으로서의 추정은 상기한 傳榮州小像의 특이한 手形에서는 또한 생각하여 볼 만하다. (서울 金元全氏 소장)

####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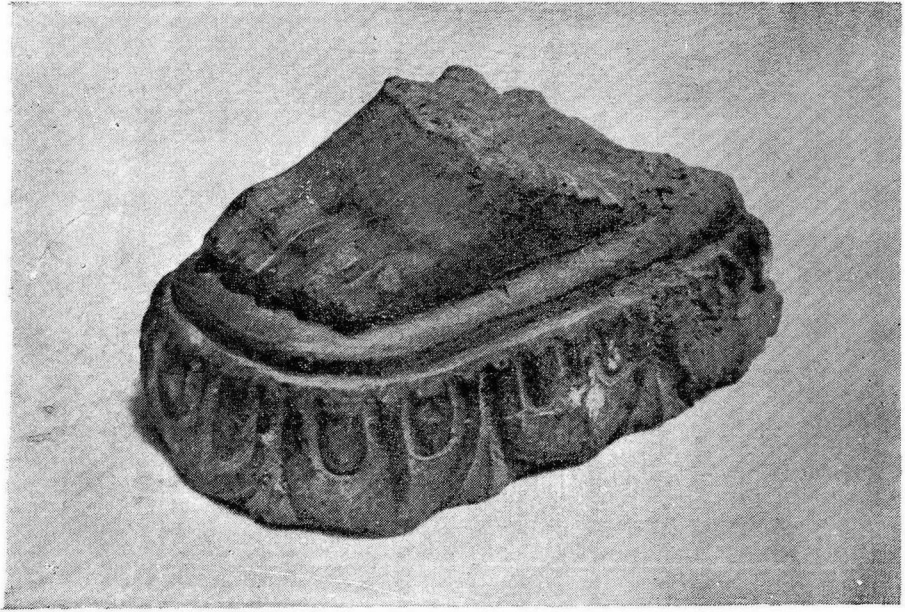
상기한 三像은 모두 근년에 새로 발견된 것으로서 出土地의 傳稱이 있는 것들이다. 그리하여 民間에 수장되어 오다가 이번 한국미술 二十年展에 出品된 것은 한국의 고대불상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半跏思惟像의 연구를 위하여 또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三像이 모두 十cm 내외에 불과한 소상이나 傳榮州像과 같은 古式의 蓮花冠은 일찌기 國內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작품이며 또 傳寧越像의 蓮花座가 보이는 樣式은 또한 일찌기 소개된 平壤 平川里出土 金銅半跏思惟像<sup>④</sup>의 같은 蓮花座樣式과 곧 比較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磨崖石像으로서의 瑞山 迦師峽의 三尊像<sup>⑤</sup> 脇侍像으로 조각된 百濟作과 경북 月城郡 西面 斷石山 神仙寺 石窟안에서 조사된 古新羅 唯一의 磨崖半跏思惟像<sup>⑥</sup>이 모두 각기 蓮花紋이 그 臺座 밑에 둘러 있는 사실은 비록 蓮瓣의 樣式에서 差別相을 지적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또한 이 傳寧越像의 고찰에서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濟麗의 磨崖像 各一例는 모두 그 原位置를 지키면서 오늘에 전래한 양국의 唯一例이며서 특히 큰 比重을 차지하여야 될 것이다. 三國期 半跏思惟像에 대한 연구는 이 같은 新例의 증가를 기다려서 앞으로 그 綜觀이 이루어져야 할을 새삼 느끼는 바이다.

##### 〔附一〕 傳 皇龍寺址出土 金銅佛頭

이 佛頭 또한 展示되어 있는 바 이것은 日政期에 발견되어서 널리 소개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小佛頭를 半跏像의 그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최근의 일로서 그 理由는 이 小像의 右頰下에 후같은 작은 突起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작은 突起는 思惟形을 이루던 右手指의 先端이 그대로 殘留된 그 痕跡으로 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三面에 따로 마련되었던 花冠의 양식이나 童顏의 微笑 등 일찍부터 人口에 膾炙되었던 이 小金銅佛頭가 바로 新羅에서 유행하였던 金銅彌勒半跏思惟像의 그것으로 추정된 것은 또한 古新羅의 이 樣式像의 고찰을 위하여 확실하게 새로운 着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滿面に 古式의 微笑를 오늘에



慶州 芬皇寺出土 土製右足座 實測圖



慶州 芬皇寺出土 土製右足座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造形이 한층 귀중함을 새삼 느끼겠다.

〔附 2〕 경주 芬皇寺出土 土製右足座

이것은 필자가 一九六五年경 경주에서 多年間 古物商을 경영하여 오면서 귀중한 유물을 제공하여 오는 昔庸湜氏를 통하여 입수한 것이다. 同氏의 傳하는 바에 의하면 오늘의 芬皇寺 正門에서 國道를 건너 바로 南西便 路邊에 자리잡은 民家에서 우연히 出土된 것이라고 한다. 이 작고 아름다운 足座는 靑은 紅色을 띠고 있는데 足指는 세부까지 표현되었 으며 그것을 받 는 橢圓形의 蓮花臺座에는 七瓣의 伏蓮複瓣이 돌려 있다. 그런데 그 蓮瓣樣式은 先尖된 廣瓣形式으로 新羅에서 보기 드문 古式임 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一九七三年 五月 十三日)

註

- ① 拙稿.. 新羅半跏思惟石像(拙著「韓國佛像의 研究」所收 一九七三年 刊)
- ② 拙稿.. 斷石山神仙寺石窟磨崖像(註一과 같다)
- ③ 이와 同式의 小像 一軀가 국립박물관(舊德壽宮美術館 소장품)에 소장되어 있다.
- ④ 拙稿.. 高句麗金銅佛像의 新例二座(註一과 같은)
- ⑤ 拙稿.. 瑞山百濟磨崖三尊佛像(同上)
- ⑥ 註② 參照